

연구소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간담회



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둘째, 촛불 시위의 주제가라 할 수 있는 '헌법 제 1조'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든 시민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정치공동체와 긍정적 동일시를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 사회적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적 국가정체성이나 저항적 민족주의와 구분되는 헌정애국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3개월 째 평화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사업회는 촛불집회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사회 변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지난달 25일(금) 사업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2008년 촛불집회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간담회는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사업회 연구소장)의 사회와 4개 분야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사회 분야 신진욱(중앙대), IT 분야 송경재(경희대), 여성 분야 양현아(서울대), 정치 분야 정상호(한양대) 교수 발표에 이어 조효제(성공회대)·홍윤기(동국대) 교수와 남지원 영화감독의 토론이 있었다.

신진욱 교수는 2008년 촛불집회의 주요한 특성으로 첫째, 촛불 참여자들은 자신을 통치할 대표자를 자신의 손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도 정치 대표자들을 감시·견제하고, 중요한 공공적 사안에 관한 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민

셋째,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학교 자율화와 경쟁중심 교육정책, 언론공공성 수호 등 의제의 확장과 연계라는 측면이다. 넷째, 다수 시민들은 개인적 결단으로 참여했으며, 목적의식적으로 조직과 인원, 사회적 영향력 등을 동원하여 목표를 관철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상황 변화에 따라 행동 목표와 수단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공론장과 커뮤니티의 역할이다.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저들에게 열려 있고, 멤버십의 경계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분명한 인터넷 공간은 적절한 계기와 의제가 형성되면 일종의 전략회의장으로 변모한다. 그러므로 '촛불'은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저항 행동들의 한 부분적 국면일 뿐이라는 것이다.

송경재 교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네트워크 군중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원인과 그들을 특성별로 구분한 뒤에 이러한 현상들이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양현아 교수는 미국 쇠고기 사안을 '생활정치'라는 성격으로 규

정하는 것은 기존 남성 중심의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언어화 되지는 않았지만 제도화된 정치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현안들이 있는데, “남성엘리트들이 장악해 온 정치 코드로 해독이 안 되면 그것을 생활정치라고 조금은 가볍게 불러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며 촛불시위를 제도정치 대 비제도정치라는 틀이 아니라, 어젠다와 방식에 있어서 ‘중심성’과 ‘주변성’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여성’이라는 기호는 매우 이질적인 존재들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위에서의 ‘여성’이란 기호는 생물학적 여자들뿐 아니라 ‘비운동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없음’과 ‘권력없음’ 혹은 ‘배후없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어젠다를 ‘보다 중요하다’는 어젠다로 눌러 ‘위계서열적 운동’으로 바꿔 버리는 전통의 부활을 경계한다. 1970,80년대 남성 위주의 경제중심적 국가중심적 사회비판은 인간의 삶의 전체성과 문화적 측면을 간과했다며, 담론의 크기가 커져서 자기 문제에 입각하여 제기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개인들이 광장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토론에서 조효제 교수는 기존의 성인,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감각과 젊은 세대의 감각 차이가 미묘하게 드러났으며, “엄숙했던 진보가 합합 진보로 경영권 승계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세대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감독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젊은 세대의 변화된 감각을 지적했으며, 홍윤기 교수는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과 각종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진보진영 담론의 확고한 승리가 장기간에 걸친 촛불집회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덧붙였다.

이렇듯 변화, 발전하는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권과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들도 오고갔다. 신진욱 교수는 다수결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만을 의미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제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정치체제를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차원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안했다. 정상호 교수도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극복하자는, 즉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견인’ 하는 역발상과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사업회 직원 학습조 경진대회 실시



사업회는 지난달 9일(수) 사업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학습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학습조 경진대회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6개의 학습조가 학습 수행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기록연구반 학습조가 최우수상을 정보화 학습조가 우수상을, 역사문화콘텐츠 학습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들 학습조에는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

사업회 소식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 2008 시민교육 국제회의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난달 14일(월)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8 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미·영 3국의 시민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함양을 통한 사회 발전 실현전략으로써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1부에서는 미국 시민교육의 대부로 불리는 찰스 퀴글리 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영국의 린 데이비스 버밍엄대학 교수, 한국의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서 3국 시민교육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정민승 방송대 교육학과 교수, 김원태 산본고등학교 교사,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베키 맥파렌 미국 시민교육 국제사업 담당자 등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함세웅 이사장은 “이번 국제회의가 해외 시민교육 기관의 최신 정보와 제도화 사례, 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다양한 자료의 공유를 통해 국내 민주시민교육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차세대 리더십 전문인턴 선발

국제사업단은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공회대학교의 협력 하에 성공회대학원 아시아시민사회지도자과정(MAINS)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가운데 2명을 전문인턴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선발된 전문인턴들은 국적을 떠나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심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차세대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관심과 전문성을 살려 기념사업회의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네팔의 서치(Sachit Lochan Jha) 씨는 인권변호사이면서 오랜 분쟁으로 파괴된 네팔의 지역사회의 복원을 위해서 활동해왔는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특히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현안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중국의 예나(Yena Wang) 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두 명의 전문인턴은 각자가 접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사료정보 콘텐츠 분석사업 결과 보고회 개최



사료관은 지난달 24일(금) 오후 3시, <사료정보 콘텐츠 현장적용 및 분석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료정보 콘텐츠'는 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한국현대사 사료(기록)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사료를 활용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이다.

이 사업은 '통일'과 '노동'을 주제로 시범 제작된 두개의 콘텐츠를 역사교육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활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콘텐츠 구축작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려고 실시한 사업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 경기남부, 전남, 부산역사교사모임과 근현대사연구모임, 한일역사교사모임 등 5개 팀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료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구축 디자인과 기능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사료관은 향후 다양한 주제의 한국현대사와 민주화운동 사료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사료관 전문요원 상반기 업무평가



사료관은 지난달 15일(화) 전문요원 상반기 업무평가와 하반기 업무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료관장을 비롯한 사료관 전 직원이 참여해 사료관리 프로세스 혁신 작업, 고가치 사료 등록, 원문구축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사업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사료를 중심으로 고가치사료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중이다.

사료관은 두가지 사업을 통해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사료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사업회 소식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교실’ 교사직무연수 진행



교육사업팀은 지난 달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서울여성프라자에서 1박 2일 두 차례 전국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교사직무연수 ‘숨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싹트는 교실’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에 맞춰 공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기존의 연수와는 다르게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장 교사를 포함한 각계 교육 전문가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모든 과목의 강사들이 전체 일정에 함께 참여 하고 강사와 수강생의 경계를 허물며 학생들을 초대, 목소리를 듣는 등 내용 뿐만 아니라 진행방법도 민주적인 연수가 되도록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고민을 나누며 민주시민교육의 큰 틀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교육사업팀은 이후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의 광주, 대구, 부산 지역 확대와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회 대학원생 방문



지난달 22일(화) 오전 11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UN, Human Rights and Contemporary Problems-Korea, Asia and Beyond” 과정을 듣고 있는 대학생 10여명이 토드 홀랜드 교수의 인솔로 사업회를 방문했다.

방문 프로그램은 사업회 유영표 부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업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상영과 사료관 견학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사업회의 사업과 국제사업단의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사업회는 앞으로 사업회를 방문하는 학생, NGO 단체, 관련 기관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주민아카데미’ 진행

교육사업팀은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각 지역 주민조직 리더와 주민조직 담당 공무원, 복지·시민단체 실무자, 대학생 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학습 참여자의 갈등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주된 학습내용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에 일조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진주·김해·안양YMCA 등 지역 YMCA 조직,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조직, 풀뿌리자치연구소, 주민자치전국협의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시민단체지역연대모임 등의 많은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조직 구성원에게 새로운 형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재교육의 기회를 항상 고대하는 복지·시민단체 실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 지역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교육을 매개로한 교류 활성화로 민관협력의 새로

운 모델 창조를 기대하고 있다. 학습참여 연 인원이 2,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의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사업팀은 향후 사업별로 구체적인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2008년 민주시민교육 주민아카데미

시기	내 용	
8~9월	열린사회 시민연합	· 협력단체 조직과 기획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기획
	한국YMCA 전국연맹	· 준비 기획모임 ·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및 학습공동체 모델 분석 · 주민리더,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교육 (안양, 김해)
10월	열린사회 시민연합	· 시민단체, 지역복지기관 실무자, 풀뿌리리더 대상 교육 (전국) · 대학생리더 대상 교육 (전국) · 주민자치센터 사례발표 및 세미나 (시흥) (2008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사기간)
	한국YMCA 전국연맹	·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및 평가를 위한 워크샵 · 주민리더,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교육 (안양, 김해)
11월	열린사회 시민연합	·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 (전국) ·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전국) · 풀뿌리공동체 심포지엄 (서울)
	한국YMCA 전국연맹	· 지역활동가 양성을 위한 실무자 대학 (전국) · 주민리더,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교육 (안양, 김해)
12월	· 2008년 민주시민교육 주민아카데미 사업 평가와 보고서 발간	

※ 일정, 내용 관련 문의 : 교육사업팀 02-3709-7622